

剗 媮 水 200

I. Introduction

II. Hair & Hair Loss

1. 탈모에 대한 한의학적 이해
2. 모발의 기능 및 종류
3. 모발의 구조 및 성분
4. 모발의 주기
5. 탈모란?
6. 탈모의 유형
7. 탈모의 원인

III. 崩髮水 200

1. 단오수 200의 구성요소 및 개론
2. 단오수 200의 구성과 효능
3. 단오수 200의 기능 및 제품적용

IV. Product Specification

V. Conclusion

I. Introduction

화장품이라는 개념의 변화가 급변하는 시기이다. 고전적인 화장품의 개념은 스킨케어가 주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화장품이 스킨케어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다. 두피케어, 모발케어, 풋케어, 바디케어 등 다양한 부분을 흡수하며 차별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두피 및 두발은 근래에 더욱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예전에는 탈모로 인한 대머리를 가발이라는 것으로 숨기려고 했던 것이 이제는 드러내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며 또한 탈모의 여러 기전을 조사 연구하여 케어를 할 수 있게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

두발용 화장품 시장의 규모 또한 날로 성장하고 있다. 두발용품은 단순한 샴푸, 린스가 아닌 두발 및 두피케어를 위한 로션, 크림, 토닉, 에센스 등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두피 케어 및 모발 케어를 위한 제품들 중에서 그 효과가 우수한 제품들은 미흡한 것이 현실적이다.

따라서 두피 및 모발 케어에 적합하고 유효성이 있는 제품을 위한 소재를 개발하였다. 천연 생약을 이용한 동의 및 기타 한의서, 민간에서 두발용으로 사용했던 생약을 이용하여 소재를 개발하였다.

鬍媠(단오)는 단정한 계집아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말로서 옛날 단정하게 잘 정돈된 그리고 깔끔한 어린 여아의 이미지와 한자는 다르지만 단오절에 머리감는 여인들의 이미지도 함께 가지는 측면에서 鬍媠水(단오수) 200 이라고 명하였다.

머리카락은 신정(腎精)과 관련이 있다.

신정이라는 것은 인체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다. 인체의 구성은 정(精), 기(氣), 신(神) 수(水), 혈(血)로 구성되어 있다. 정(精)은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바탕 물질이라는 의미이며 이러한 정은 인체의 기운을 생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신정(腎精)이라는 말은 인체의 근본적인 생성과 생식에 바탕이 되는 물질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물질을 대표적으로 "정액"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액에서부터 유발되는 에너지를 "정력"이라고 하는 것이다.

열(熱)이란 글자 그대로 "더운 기운"을 말한다. 더운 기운의 상대적 개념은 "찬 기운"이다. 또한 인체가 더운 기운이 많아 지려면 이를 제어할 다른 요소가 약해져 있음을 의미 한다. 열을 식히는 것은 물이다. 인체의 물은 정(精)과 혈(血)의 생성에 주요한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열의 항진은 바로 정혈수(精血水)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다.

탈모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선 이러한 신(腎)의 기능의 약화를 들 수가 있다. 한의학에서는 천지인(天地人) 상응이라 하여 자연의 형상이 곧 인간의 형상과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파악한다. 인간의 모든 생병리적인 현상은 자연계의 법칙과 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머리카락은 자연계에서 본다면 풀과 같은 것이다. 풀이 잘 자라는 조건이 곧 머리카락이 잘 자라는 조건이 되며 반대로 풀이 잘 자라지 못하고 잘 뽑히는 상황이 탈모를 유발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풀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적당한 온도, 습도, 영양분, 바람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한열, 조습, 풍, 기혈이라고 파악하면 이는 인체의 변화의 원리가 되는 것이다.

마르고 건조해져서 영양이 부족하고 두피가 척박해진 상태가 오래 된다면 머리카락이 말라서 잘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반대로 너무 습기가 많아져서 기름기가 차지면 머리카락이 정상적인 생리작용을 못하고 빠지게 되는 것이고, 몸이 차가워지거나 기운이 허약해져서 인체가 냉해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너무 더워도, 너무 말라도, 너무 습해도, 너무 냉해도 안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은 균형을 잘 맞춰주는 것이 치료가 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모발의 기능

모발은 생명과 관계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적인 매력을 제공해주며 머리카락은 태양광선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하고 눈썹이나 속눈썹은 햇빛이나 땀방울로부터 눈을 가려 주는 역할을 한다.

모발의 종류

우리 인체의 피부를 덮고 있는 모발의 종류는 다음의 네 가지이다.

1. 취모(배냇머리, 솜털, lanugo)

태생기때 즉, 어머니 배 안에서 태아가 발생하여 약 20 주간이 되어 그 인생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가늘고 연한 색깔의 모발로 출생 무렵에 탈락되고 연모로 대체된다.

2. 연모(솜털, vellus hair)

몸 대부분을 덮고 있는 섬세한 털을 말하며 인체 부위에 따라 풍부한 색소를 갖게 되며 굵고 튼튼한 종모로 대체된다.

3. 중간모(indeterminate hair, intermediate)

연모와 종모 사이에서 구분이 애매한 모발을 말한다. 구별은 그 길이보다 그 직경에 의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연모는 그 직경이 20~40 마이크로미터이며, 대부분의 종모는 60~120 마이크로미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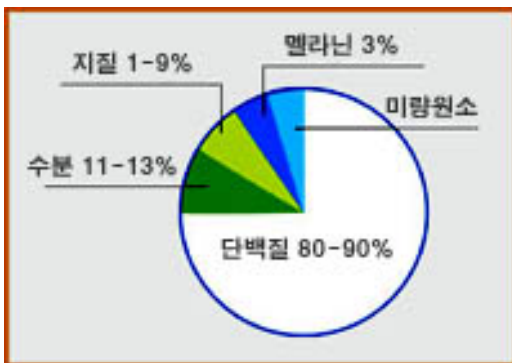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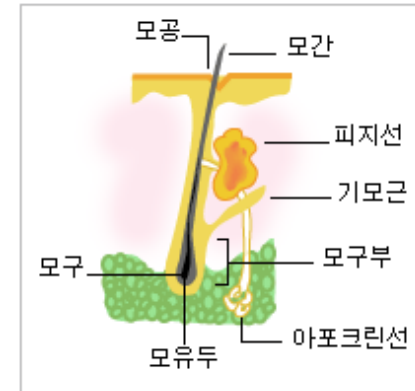
4. 종모(성모, 종말털, terminal hair)

성인의 머리카락, 눈썹, 속눈썹, 수염, 겨드랑이 및 음부의 털은 모두 종모이다. 연모가 종모로 대체되는 정도는 유전적 소인 및 내분비기관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두피의 모발은 남자, 여자, 한국인, 서양인 모두에서 종모로 변하게 되는데 가슴 털은 일부의 한국인 또는 더 많은 서양 남자 성인에서만 종모로 변하게 되고 대부분의 여자에서는 연모로써 남는다. 겨드랑이 및 외음부도 모든 인종의 성인 남녀에서 종모를 보이며 남성형 대머리는 반대로 종모에서 솜털로 바뀌는 것이나 그 정도는 역시 각 개인의 내분비 기능과 유전적 소인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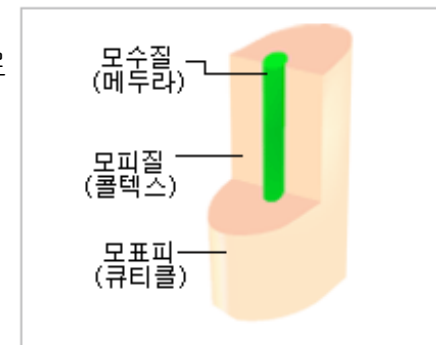
모낭의 구근 모양의 부분을 모구(毛球)라고 한다. 이 모구의 가장 아래쪽 중심에는 모유두(毛乳頭)가 있고 여기에는 모세혈관이 거미줄처럼 망을 형성하고 있다. 모유두를 둘러싼 부위를 모기질(毛基質)이라고 부른다. 모기질은 모기질 세포와 멜라닌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포 분열이 아주 활발한 곳으로 털의 생산 공장에 해당한다.

모기질 세포에서 분화되어 피부 표면으로 이행함에 따라 각화 되는데 이 각화된 구조물의 제일 안쪽이 털(모간, 毛幹)이다. 이 털은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모수질(毛髓質), 모피질(毛皮質), 모소피(毛小皮)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피부 표면 가까이에는 모낭과 한 세트가 되어 있는 피지선(皮脂腺)이 마치 포도송이처럼 달려 있으며 이 피지선의 분비물이 밖으로 나오는 배출관은 모공과 연결되어 있다. 피지선 아래 쪽에는 기모근(입모근, 立毛筋)이 붙어 있는데 기모근(起毛筋)이란 털을 서게 하는 근육이다.



모발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은 18종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90%의 케라틴과 10% 정도의 수분으로 이루어지며 구성원소는 탄소, 산소, 질소, 수소, 유황으로 이루어져 있다.



양의학 견해

사람의 모발은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면 자연히 빠져버리고(두발은 하루에 약 70~80본의 자연탈모가 있음) 얼마 지나면 새 털이 난다. 이것을 털의 수명 또는 모주기(毛周期)라고 하며, 성장기·퇴행기·휴지기로 이루어진다. 그 기간은 신체의 부위나 연령에 따라 다르나, 성장기가 긴 것일수록 털이 길게 성장한다. 두발은 85%가 성장기에 있고 5~7년간 계속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중에는 25년에 이르는 것도 있어서 2m를 넘는 사람이 있다. 퇴행기의 털은 2%로 2~3주간이 지나면 휴지기로 들어가 탈락한다.

(1) 성장기 : 모발이 계속 자라는 시기로 모낭의 기저부위 즉, 모구에서는 세포분열이 활발하다.

(2) 퇴행기 : 모낭의 성장활동이 정지되고 급속도로 위축되는 시기이며 이때의 털의 모양은 곤봉과 유사하게 된다.

(3) 휴지기 : 이 시기의 모낭은 활동을 완전히 멈추고 머지않아 다가올 탈모를 기다리게 된다. 휴지기 모발의 기저부에서 새로이 나타나 자라게 되는 성장기 모발에 의해 밀려나 빠지게 되거나 빗질이나 머리를 감는 등의 기계적 작용에 의해서 빠지게 된다.

한의학 견해

신(腎)기능이 약화되고 또 혈액이 부족하게 되면 모발을 만들어낼 수가 없게 된다. 그 결과 탈모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일상생활에서의 잘못된 머리손질도 탈모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모발의 주기는 곧 식물이 봄에 싹이 트고 여름에 무성했다가 가을에 시들고 겨울에 쉬면서 다음해 봄에 다시 새싹이 돌아 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대체로 모발 한 가닥의 수명은 남성인 경우는 2~5년이고 여성은 3~5년이다. 모발의 수량은 약 10가닥 정도 된다. 그러나 각 모발의 주기는 모두 어긋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두 빠지는 일은 없다. 그 결과 모발은 영원히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모발이 빠진 뒤 새로운 모발이 돌아나지 않으면 모발의 수량은 갈수록 줄어들게 된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신은 신장과 방광, 생식기 등을 총괄하는 의미이다. 또 귀와 골격, 모발, 치아, 다리와 허리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신은 모발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신기능이 약화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탈모와 백발 등 모발의 여러가지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일상생활의 습관에서 신기능을 약화시키는 원인은 매우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과다한 염분의 다량섭취도 신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또 밤을 지새우는 생활습관 등도 문제가 된다.

모발은 혈의 나머지이다.

한의학에서는 모발의 원료를 혈액으로 보고 있다. 체내에서 순환하던 혈액의 잉여분이 모발로 변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체내에서 순환되던 혈액이 부족하게 되면 모발에 작용하는 혈액의 양이 모자라게 되면서 모발을 만들어 낼 수가 없게 된다. 뇌 안의 혈류량이 부족하여 빈혈이 발생한 것처럼 두피가 긴장하거나 어깨와 목이 시큰하고 아파도 혈관에 영향을 미쳐서 혈액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게 된다. 이럴 경우 모발을 만들어 내는 원료의 부족을 초래하여 새로운 모발이 돌아나지 않게 한다. 특히 이것은 모발이 가늘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현대인의 긴장된 생활은 건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긴장감이 있게 되면 교감신경도 따라서 긴장 하게 되고 피지선(皮脂腺)의 활동도 왕성해지게 되며 두피(頭皮)에서 분비하는 지방량도 증가하게 된다. 쉽게 말해서 머리에 지방, 땀이 나는 것이다. 땀은 알칼리성으로 그대로 두면 세균 번식이 일어나서 불결한 상태가 된다. 자주 씻지 않거나 청결을 유지하지 않으면 두피에 자연히 비듬이 생기게 된다. 이들 비듬 부분부터 시작하여 모구부(毛球部)가 손상을 입어 탈모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긴장과 초조가 빚어내는 탈모의 유발 원인이다.

1. 정신적 자극이 심해 혈액이 뜨거워져서 탈모가 된 타입

갑자기 원형이나 타원형으로 탈모되면서 그 부위가 번쩍거리고 약간의 가려움증이 있다.

2. 혈액이 부족하거나 영양상태가 좋지 못해서 탈모가 된 타입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정수리나 이마 양쪽 위로 벗겨지며 두피에 진득진득한 비듬이 끼고 가려움을 느낀다. 아주 천천히 지속적으로 진행, 확대되는 타입이다.

3. 기혈이 모두 허해져 모발에 영양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탈모가 된 타입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가슴이 몹시 뛰고 손발이 잘 저린다. 이 타입의 대머리는 연령에 관계없이 만성병이나 산후에 잘 일어나며 머리카락이 건조해 윤기가 없어 잘 부서지고 잘 끊어지며 탈모가 온 머리에 두루 일어난다. 그러나 앞쪽보다 뒷 머리쪽 탈모가 훨씬 눈에 띄게 일어난다.

4. 피의 흐름이 좋지 않거나 피가 탁해져 오는 탈모

탈모가 부분적으로 올 수도 있고 머리 전체에 걸쳐 올 수도 있다. 머리카락만 빠지는 게 아니라 눈썹이나 수염마저 빠지며, 좀처럼 빠진 머리카락이 다시 나지 않다. 어혈이 있으면 얼굴이 검어지고 입술이 검붉어지고 갈증은 있지만 물을 머금을 뿐 마시고 싶어 하지 않다.

탈모는 한의학에서 독두(禿頭), 귀저두(鬼低頭), 유풍(油風)이라 하여 그 원인, 치료, 그리고 예방법을 수록하고 있다. 동의 보감 외형편 모발에 의하면 혈액이 왕성하면 모발이 윤택하고, 혈액이 쇠약하면 모발이 약하고 혈액이 뜨거우면 모발이 노랗고, 혈이 부족하면 모발이 희어진다고 했다. 이와 같이 모발은 혈(血)의 생리작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의학에서 혈은 혈액뿐만 아니라 각종 호르몬 등을 포함한다.

1. 腎虛,(신허), 血虛(혈허)

머리카락 자체가 허약하고 노화되어 탈모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무 자체가 허약하여 토양에 영양분이 없어지기 시작하여 영양공급이 잘되지 않을 때를 말한다.

2. 風濕(풍습)이나 濕熱(습열)

수습(水濕)으로 체내 필요 없는 과다한 습기로 인하여 모발이 탈락되는 것으로 나무의 물기가 너무 많아 뿌리가 썩게 되는 경우와 같다.

3. 頭熱足寒(두열족한)

화열(火熱)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화나 열기가 너무 많아 모근이 타듯이 빠지는 것으로 나무가 건조해지기 시작하여 윤기가 없어 말라서 죽게 되는 경우와 같다.

4. 유전, 호르몬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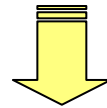
일반적인 탈모의 원인으로는 유전설과 호르몬설이 있으며, 호르몬설은 호르몬의 불균형에 의해 일어난다. 남성의 경우 호르몬이 지나치게 강하여 발생하는데 이것은 여성에게는 대머리가 적다는 사실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 유전설은 우성유전에 의하여 주로 남성들에게 유전되며, 호르몬은 미량으로 인체대사를 조절하는 물질로서 인체의 모든 모낭(毛囊)은 특히 안드로겐 호르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안드로겐 호르몬은 모피지선 구조의 기질세포를 연모보다는 성모가 되도록 유도하는 작용을 한다. 그러나 그 반응의 질과 정도는 인체에 분포하는 여러 모낭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특히 두발(頭髮)의 모발은 안드로겐 호르몬에 의하여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드로겐 호르몬에 의해 억제된다. 이외에도 모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유전, 환경, 약물, 여러 질병 등 다양하다.

5. 생활 환경적 탈모 원인

술과 담배, 탄산음료는 모발의 3대 적이다. 남성 탈모증이 나타나는 경우 대부분이 술을 즐겨 마시고 담배를 많이 피우며 탄산음료를 즐겨 마시고 밤새워 놀기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경우 탈모증의 발생 시기는 대개가 24~25세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耑媯水(단오수) 200은 이러한 세포의 기능 저하에 의한 노화로 인해 파괴되는 콜라겐의 합성을 증가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생약재들로 구성되었다.

耑媯水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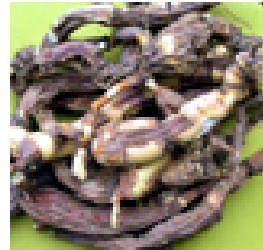
홍삼



백지



한련초



하수오



당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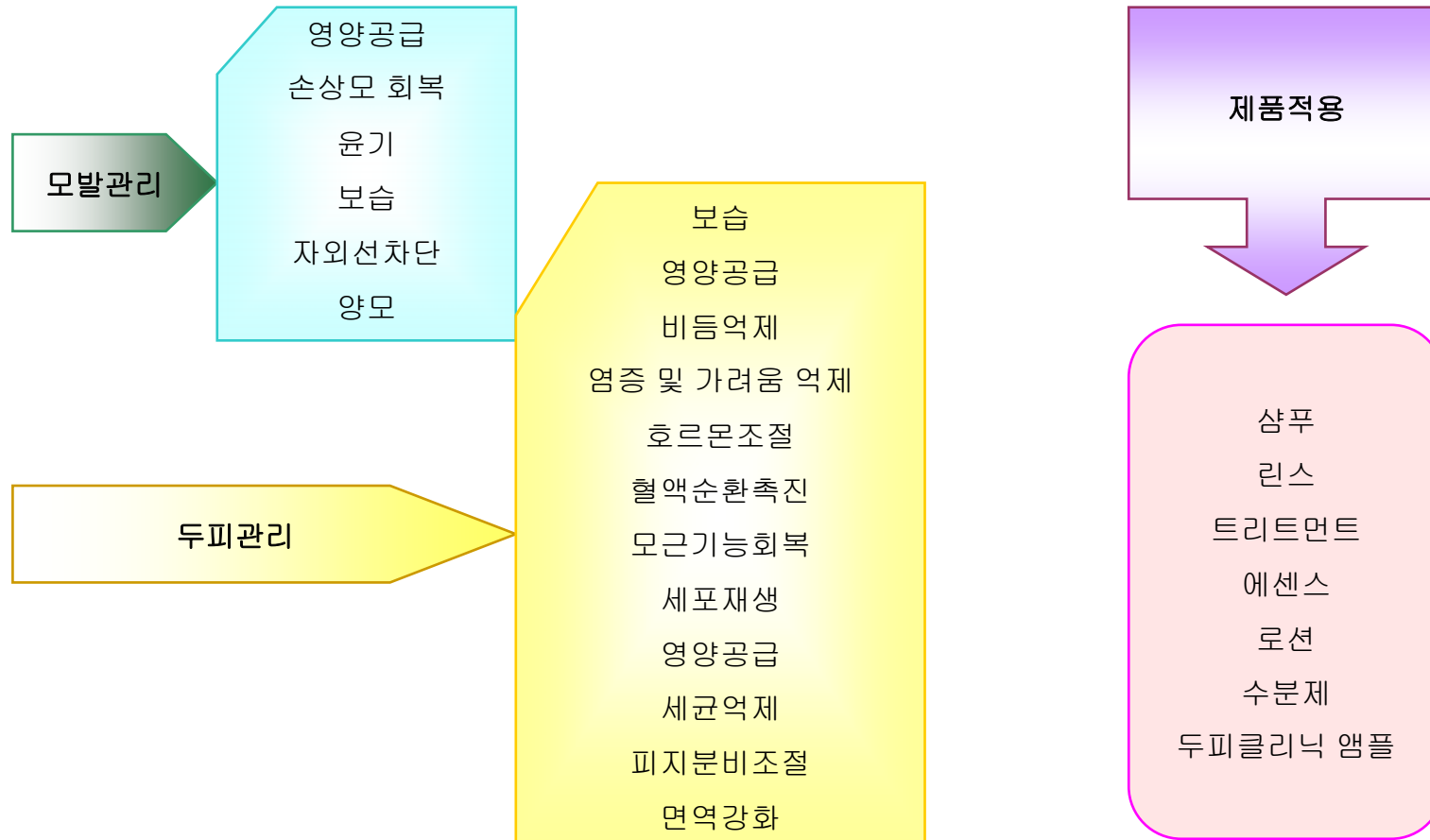
석류



대황

◆ : 주 효능 ◇ : 부 효능

구분	한련초	석류	홍삼	백지	당귀	하수오	대황
영양공급	◆		◆			◇	
보습							◆
비듬억제			◇		◆	◇	
염증억제			◇				◆
가려움증억제				◆	◆		◇
혈액순환촉진		◇	◇			◆	
윤기부여						◇	
호르몬조절		◆					
신진대사촉진	◇	◇	◇				
면역강화	◆		◆	◆	◇	◇	
세균억제	◆			◆	◇		◆
두피강화		◇				◇	
육모/백발예방	◆					◆	



IV. Product Specification

Analytical Test	Specifications
INCI Name	Water / Butylen Glycol / Glycerin / Rheum palmatum root extract / Eclipta prostrata extract / Polygonum multiflorum root extract / Angelica dahurica root extract / Punica granatum extract / Panax ginseng root extract / Angelica gigas root extract.
Description	Dark brown liquid
Odour	Typical
Refractive Index(20°C)	1.380 ~ 1.420
p.H	4.5 ~ 6.5
Specific Gravity(d20/20)	1.035 ~ 1.075
Identification -1) Saponin -2)Tannin	적갈색 암녹색
Heavy Metals	≤ 10ppm
Arsenic	≤ 2ppm
Microbes	≤ 100 cfu/ml

- 1) 시료 약 5ml을 수욕상에서 증발건조 (또는 감압건조) 시킨 후 무수 초산 2ml을 가하고, 2분간 가온 시킨 후 여과한다.
여액 1ml을 황산 0.5ml에 가할 때 (유리관 벽면에 소량씩 천천히 가한다.) 접계면은 적갈색을 나타낸다.
- 2) 시료 약 2ml에 2.5% 염화제이철(FeCl3)시액 1~2방울 떨어뜨려 방치할때, 암녹색을 나타내거나 침전된다.

V. Conclusion

모근의 아래 끝에 존재하는 모구에서는 모세혈관이나 신경이 분포되어 있는 모유두가 있는데, 이 부분에 콜라겐과 다양한 단백질 등이 존재하여 털의 영양이나 발육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섬유아(fibroblast)라 불리는 피부세포는 콜라겐을 생성할 수 있어 필요한 시기에 파괴된 콜라겐 섬유질을 새 것으로 대체한다.

나이가 들면서 손상된 콜라겐을 대체하는 피부능력이 소멸하여 피부는 물론 뼈와 관절, 그리고 혈관과 머리카락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모세혈관의 순환장애로 영양공급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따라서 콜라겐과 같은 단백질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세포에 직접 공급해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모세혈관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 준다면 모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단오수(斷髮水) 200은 이러한 세포의 기능 저하에 의한 노화로 인해 파괴되는 콜라겐의 합성을 증가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Glycoprotein, 대황, 한련초, 하수오, 백지, 석류로 구성된다.

단오수(斷髮水) 200의 Collagen, Elastin 생합성률을 측정하기 위해 섬유아세포에 단오수(斷髮水)를 처리하여 실험한 결과, procollagen의 생합성이 80%가량 증가하였고, Elastin의 생합성이 75% 증가하였다. 이로서 단오수(斷髮水) 200은 collagen과 Elastin의 생합성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오수(斷髮水) 200은 섬유아세포에 영향을 미쳐 Collagen과 Elastin의 합성을 증가시키고, 모세혈관에 작용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모근과 모유두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 배출하여 노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모발성장 촉진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